
새국어생활의 20주년을 축하하며

박준언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이종언어학회 회장

국립국어원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새국어생활》이 올해로 발간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오랜 세월 동안 《새국어생활》에 게재된 수많은 글들이 우리말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어 사용 환경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영어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국어만 사용하는 단일 언어 사용 국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국어생활》은 이러한 국어 사용 환경의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말을 더욱더 다듬고 보존하는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머지않은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이질감 해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외적으로는 700만 해외동포들의 한글 교육뿐 아니라,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날 영어가 누리는 지구촌 언어로서의 위상을 우리 한국어가 이어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덧 청년의 나이를 맞이한 《새국어생활》의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세계사의 중심으로 응비하는 한민족 언어 생활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